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 6.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6월 10일, 김영배·최형두의원 등 69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6.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영배의원)

1950년 11월 평안북도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도 필사적인 항전으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그 공로로 동성무공훈장, 수교훈장, 백선엽 한미동맹상 등을 수훈하였음.

전역 후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제13선거구에서 46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국 의회에 꾸준히 강조하였음.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장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하였으며, 지한과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Korea Caucus)를 창립하는 등 초당적 의회 외교 협력을 실현하였음.

이와 함께 그는 한국전쟁 납북자 송환 결의안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2011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 (Resolution Encouraging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13년),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Resolution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2014년),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2015년) 등을 발의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체로 비판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한미 FTA를 앞장서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의 서거를 애도하고, 그간의 공로를 기리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그의

평생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김영배의원·최형두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은 지난 5월 26일 미국 현충일(Memorial Day)¹⁾에 만 94세의 나이로 별세한 故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려는 것으로, 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고, ② 46년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며, ③ 고인의 서거에 깊은 애도와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임.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1930년 미국 뉴욕시 할렘 출생으로 미국 육군 복무(1948년~1952년) 중 발발한 6·25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미군 제2보병 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여 낙동강 방어 전투, 군우리 전투 등 주요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950년 11월 평안북도 군우리 전투(청천강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 그는 이때의 공로로

1) 우리나라의 현충일(6월 6일)에 해당하는 미국 Memorial Day는 전몰자 추도기념일이자 연방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정하는데, 2025년의 경우 5월 26일임.

전투 지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장병에게 수여하는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과 전투 중 전사 또는 부상 장병에게 수여하는 ‘퍼플 하트 훈장(Purple Heart)’을 수훈하였음.

1952년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미국의 제대군인지원법(G.I.Bill)에 따라 고등교육을 지원받아 뉴욕대학교 상과대학(1957년)과 세인트존스 대학교 로스쿨(1960년)을 졸업한 후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 검사보로 근무하다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뉴욕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71년 1월부터 민주당 소속의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래 2017년 1월까지 23번의 임기(제92대~제114대)를 거쳐 총 46년간 뉴욕시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연방의회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위원장(2007년~2009년)과 국제무역, 보건의료, 경제 정책 등 주요 정치 이슈를 관장하는 연방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위원장(2007년~2010년)을 역임하였음.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중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참전용사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미 의회 내 지한파(知韓波)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²⁾를 창립하여 초대 공동의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전참전용사 인정 법안」(2009년)³⁾, 「한반도 평화·통일

2) 코리아 코커스는 미국 연방의회 내에서 대한민국과 친선의지를 표명하는 의원 간 비공식 연구·친목 협의회로서, 연방하원의 경우 2003년 1월, 연방상원의 경우 2007년 3월에 최초 결성됨.

3) 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는 7월 27일을 공식적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날 국

촉진 결의안」⁴⁾ 대표발의 및 상·하원 의결(2013년), 「이산가족 상봉 촉진 결의안」⁵⁾ 대표발의 및 상·하원 의결(2016년) 등을 주도하였으며,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지지하며 협정 체결에 기여한 바가 있음.

우리 정부는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에 대하여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에 ‘수교훈장 광화장’⁶⁾을 수여하였고, 2021년에는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백선엽 한미동맹상’⁷⁾을 수여하였음.

동 결의안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서거를 애도함과 아울러 그의 공로를 기리고, 한미동맹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지켜온 고인의 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미 양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 제양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2009년 7월 27일 제정됨.

4) Resolution Encouraging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solution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6) 수교훈장(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광화장은 외교 관계 발전과 우방국과의 친선 증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수교훈장 중 최고등급인 1등급에 해당함.

7)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매년 국방부에서 선정함. 최근 수장자로는 2020년 제임스 매티스 대장, 2021년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 2022년 댄 설리번 상원의원, 2023년 故 김영옥 대령, 2024년 故 딘 헤스 대령 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주 문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장(2007~2010년)을 지낸 23선 중진 하원의원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찰스 랭글 (Charles B. Rangel) 의원이 2025년 5월 26일, 미국 현충일에 향년 95세로 서거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가 남긴 한미동맹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이 46년간 미국 의회에 재직하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1950년 11월 평안북도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도 필사적인 항전으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그 공로로 동성무공훈장, 수교훈장, 백선엽 한미동맹상 등을 수훈하였음.

전역 후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제13선거구에서 46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국 의회에 꾸준히 강조하였음.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장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하였으며,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Korea Caucus)를 창립하는 등 초당적 의회 외교 협력을 실현하였음.

이와 함께 그는 한국전쟁 납북자 송환 결의안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2011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 (Resolution

Encouraging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13년),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Resolution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2014년),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2015년) 등을 발의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체로 비판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한미 FTA를 앞장서서 지지해 체결에 기여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의 서거를 애도하고, 그간의 공로를 기리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그의 평생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